

경북도, '실크로드 문명교류전' 전시회 개막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전, 해양 실크로드와 불교 전래의 길

경북도는 27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전시실 1층에서 이정률 정무실장, 흥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박천수 경북대학교박물관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전 '실크로드 문명교류전'이라는 주제로 전시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전시실 1층에서 1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수집한 대표유물 및 자료를 통해 고대 중세 한반도가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해역 세계와 직접 연결됐음을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전시회의 대표적인 유물과 자료는 바다를 통해 유라시아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래된 인도산 홍옥수와 유리구슬, 유리기, 로마 토기와 이슬람 도자기, 중국 도자기, 향료와 보석 등 102점으로 구성됐다.

국가들과 교류한 신라인 특유의 진취성과 포용력, 개방 정신이 지금의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근원이라 생각하고,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조성 사업을 통해서도 실크로드 주요 교역국과 꾸준히 학문과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인 만큼 양국의 문화교류에도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은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유라시아 해역 세계와 교류한 대표유물을 통해 다시 한번 경북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전시가 지방시대를 넘어 전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 참석...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 되새겨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과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며 김장을 통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대

통령은 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 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평안남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인 농업인,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원자력과 양자공학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인 유학생, 경상북도 포항에서 오랜 기간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몸담아 온 자원봉사자, 김치명인, 조승희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 이성희 농협중앙

회 회장 등과 한 테이블에서 함께 김장을 담고,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를 싣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대통령 부부는 김장 봉사에 이어서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등을 묻고 함께 셀카를 찍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행사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모인 테이블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담긴 김치를 시식하기도 했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건넨 김치를 맛있게 시식한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하게 만들어서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며 김치를 건네준 어린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또한 김치를 건네 먹고 박수를 치며 어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김장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으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오늘 행사는 경기 고양 킨텍스(약 2,000여 명)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약 2,500여 명)와 45개 시·군·구에서(약 3,500여 명)도 동시 진행됐으며, 17개 시·도의 김장 행사 현장 영상은 킨텍스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영상에는 시·도 현장에서 참여 중인 자원봉사자들의 소감도 담겼다. 봉사자들은 저마다의 소감을 전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제주도의 한 참석자는 마을의 자원봉사자들과 다문화 가족분들이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의 손길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봅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72,000kg(킨텍스 25,000kg, 시·도 75,000kg, 시·군·구 72,000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월드킴공원에서 2023 새활용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참여가족 모집

서울시는 월드킴공원에서 12월 16일, 17일 2일간 '2023 새활용 크리스마스' 12월에 행복을 나누는데이~"를 진행하고, 새활용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40팀의 가족을 사전 모집한다.

'2023 새활용 크리스마스'는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순환 및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환경을 지키는 방법중 하나인 새활용을 재밌게 경험하고 실천해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체험프

로그램과 나눔마켓, 시민 재능기부 이벤트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해피 포토존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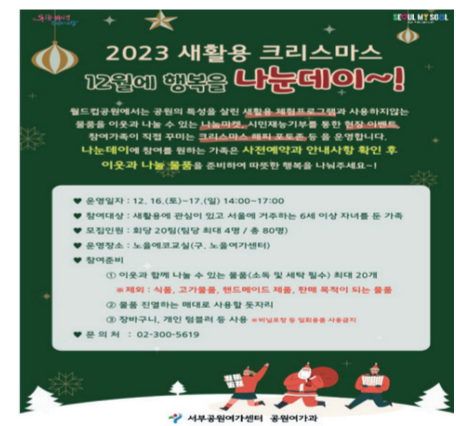
체험프로그램은 공원에서 나는 자연물과 일상에서 쓰고 버리는 재활용품을 가치있게 새활용 해볼 수 있도록, 나뭇가지와 솔방울 등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장식품 만들기, 재활용 스노우볼, 휴지심 소품함 만들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자원순환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

도록 참여 가족별로 준비한 나눔 물품을 소개하고 교환해보는 나눔마켓을 운영한다.

나눔마켓은 가져온 물품의 수량만큼 교환쿠폰을 지급받아 원하는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 단 식품, 고가물품,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가 목적이 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나눔마켓 종료 후 교환되지 않은 물품은 지역야생센터, 보육원 등 필요한 곳에 기부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남원시 · 전북대학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Global TOP 100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배진석 경북도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도내 고등학교 유학생 수용프로그램 개설도 함께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

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전국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한국어 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하여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소 초기에 운영이 잘되는 점, 아쉬운 점, 보강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경주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경주 교육장은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속히 듣고,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라고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

장 시급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센터는 현재 정규교사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보건 1명, 그 외 강사 26명이 있으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강사보다 정식 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경주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경주지원청과 거리상 멀어 개소 초기 빠른 안정이 급선무인 센터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만큼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로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건의했다.

그 외에도 배 의원은 경주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고등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선도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배진석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과거에 비해 업무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는데, 비해 권한의 범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를 통해 문턱이 높은 교육청과 벽이 두꺼운 학교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제19기 정책위원회 해단식으로 공식 일정 마무리!

11.24(금) 제19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하여 공식 일정을 마무리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제19기 정책위원회 해단식을 마련하여 전체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제 19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22.11.29. 3로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2명 등 29명으로 구성되어 '23.11.28 3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김용호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단 및 시의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현기 의장의 기념축사에 이어 영상을 통해 1년간의 연구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19기 정책위원회는 주거·교통·안전·교육·환경·지방행정·지방의회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하여 정책연구 활동을 펼쳤으며, "제20기 정책위원회에도 풍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날 해단식 일정은 마무리 됐다.

김용호 정책위원장이 주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안전도시 건설,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와 서울시 집행부와 연계, 세 차례에 걸친 정책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김현기 의장은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를 수여했고,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책연구 사례집을 전달하며 참석자들과 그동안의 활동 소회를 나누기도 했다.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지난주 서울시장과 소통간담회에서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가 더 나은 서울시민의 삶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는 김현기 의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아니었다면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그간의 소회를 밝힌 바, 7건의 정책연구 성과를 도출했으며 김용호 정책위원장이 주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안전도시 건설, 시민

최광수/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부산시 난임지원사업 개선으로 전국 어느 병원 이용하더라도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돼

지난 8월 정책간담회 주재시 공식건의, '지역제한 폐지'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개선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제317회 정례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민건강국) 과정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역제한 폐지를 성과물로서 이끌어내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종환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주재(지난 8월24일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 시의회 홈페이지 既게시)했으며, 건강정책과장, 가족건강팀장, 담당 주무관, 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참여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제한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간에는 부산 지역 내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 어

느 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달라는 공식적인 건의를 했던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여러 난임부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부산 외 지역의 난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게 됐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재하여 해당내용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그간 부산시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온 결과, 지역제한 폐지라는 성과를 내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 내년부터 부산시 난임부부라면, 전국의 어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난임치료를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고군분투 임신을 접하면서, 지역제한만큼은 꼭 폐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 부산시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온 결과, 이러한 성과를 내게되어 뿌듯하게 생각한다."라며,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들의 귀한 마음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난임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지난 7월,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 지역내 난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은 바 있다. 김희태/기자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 누계는 20,2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광주·전남에도 마약 사범 누계가 1,145명으로 약 88%가 증가하는 등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한국의 실정을 설명했다.

이세은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순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순천시에도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세은/기자



대구시의회 운영애 의원, 방치된 빈집관리, 국가와 민간 적극 나서야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구시의회 운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책과 더불어 민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운영애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대구 지역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대구의 각 구·군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빈집정비 관련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비지원수단을 활용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빈집정비계획도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한다.

또, "공공 주도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지원해 지역 내 빈집을 집주리 교육장이나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의 역할도 찾아야 한다"며, 빈집정비를 넘어서 관리주체의 민간 확대와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도 주문한다.

운영애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빈집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며,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빈집이 주택가격 및 지역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근수/기자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 학교시설 내 시민 공유공간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익활동을 위한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적극 나서야



대구시의회 운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7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학교시설 내 시

민 공유공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울산숲사랑운동(대표 김석기)을 비롯한 시민사회 및 울산교육청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울산숲사랑운동 김석기 부부장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공유경제 모델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며 "학교시설 내에 존재하는 유휴공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공익사

업에 필요한 유휴공간 활용에 공감하며 적절한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특정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울산 시민단체의 취지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시민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황규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리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김동연지사,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반도체 등 혁신산업 협력 논의

경기도와 카탈루냐가 자매결연 맺은지 24년,
오랜 우호관계 속 교류 확대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면담은 카탈루냐 대표단이 경기도 방문과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

하면서 성사됐다.

경기도와 카탈루냐는 1999년 자매결연 체결 후 상호 방문, 스포츠, 문화, 스타트업 등 24년 동안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온 관계다.

2021년에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 협력분야 확대하기 위한 교류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양 지역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카탈루냐주와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사전 행사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 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펠소 스페인에 관심이 많았던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해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카탈루냐 대표단을 환영했다.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카탈루냐 여성 그래피티 어번아트 Catalonia Women Graffiti Writers’ 전시회를 둘러보며 참여 작가도 만날 예정이다. 27~30일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카탈루냐 출신 여성 작가 5인의 작품 25점을 소개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스미싱 근절을 위한 보폭 확대!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경기도민 보이스피싱 피해 이미 많아... 개정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 사업 추진 및 경기도 역할을 위해 전방위적 고민 필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폭을 넓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조례가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으며 전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도 확인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사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 받은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가 피해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제투자실을 비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조례명에 ‘피해 예방’을 넣으며 범위 확대를 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와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개정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3년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1,551명이고, 피해액은 무려 5,290억원이다”며, “국가사무의 영역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입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실태조사 조사 하지 않고 있어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게 구체적인 예방 방안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4년 상반기 내 경기도 집행부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월) 제37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교육청 2024 무상체육복 예산 미편성...지원 의지 1도 없다”

이자형 의원, 내년도 중·고 신입생 체육복 ‘선구매·후지급’ 제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체육복을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청이 무상체육복 지원에 산을 미편성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청이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2024년도부터 무상체육복을 지원하겠다는 데에는 공감을 해

고, 최근 느닷없이 1년을 미뤄 2025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화한 합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내년도 교육비 집행과정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체육복을 위한 일정을 진행할 경우 학교 행정업무의 가중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 5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2025년부터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육 및 체육복 등을 자유롭게 선택

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체육복을 선구매 한 뒤 영수증 지참시 스킨뱅킹을 통한 후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며 유연한 지급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교육청은 현물 지급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고,



안광를 부위원장 역시 “교육청이 무상체육복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다보니 핑계만 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3년간 집합건물 관련 예산은 5,480만원, 홍보비는 600만원이 전부”

2024년 경기도 집합건물 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480만원이 전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촉구했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의 예산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집합건물 감독 권한이 강화됐고 이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민들에게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4년 편성된 집합건물에 관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3년 동안 5,480만원의 금액만 편성됐고 도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수 있는 관

련 홍보예산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하는 자문사례집 비용 600만원이 전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관련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경기도 부동산포털과 연계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시에도 집합건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경기도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은 34만 동인 반면, 2024년도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은 140호로 매우 적은 편인데 시·군의 수요가 없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수요를 발굴하

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데 기여하고 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수자원본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광명시 노온정수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미진한 부분은 경기도 및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어르신은 왜 접종이 필요한가요?

-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 65세 이상은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습니다.
- 2022년 사망원인 3위는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91.9%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3.9.21.)
- WHO, 미, 영, 일, 호주 등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이번 신규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백신입니다.**
- 기존 백신에 비해 현재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최대 4배 효과가 높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사망 위험을 약 1/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 권고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 **접종대상** |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 접종일정** 2023.10.19.(목)~2024.3.31.(일)

접종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 의원) 및 보건소
-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대리 예약 가능)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될까요?

▶ 가능하다면 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지난 동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같이 맞은 분들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코로나19만 맞은 분들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등이 약 40% 낮았습니다.

수원시 '수-원더랜드'로 놀러 오세요!



여행커뮤니티 미디어 '여행에 미치다'와 함께 제작한 콘텐츠 '수-원더랜드' 공개

수원시가 국내 대표 여행커뮤니티 미디어인 '여행에 미치다'와 함께 '새로운 수원'을 소개하는 영상 '수-원더랜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수원(SUWON)과 경이로운 도시를 상징하는 원더랜드(WONDERLAND)의 합성어인 '수-원더랜드'(SUWONDERLAND)는 수원시의 관광자원과 명소 곳곳을 소개하며 '새로운 수원'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영상이다.

수원화성, 무예24기 시범공원,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미디어아트, 화성어차, 화홍문, 화성행궁, 장안문, 방화수류정, 화성어차, 수원수목원, 전통시장, 남문통닭거리, 행궁동 공방거리, 광고호수공원, 수원수목원 등 수원의 가볼 만

한 곳과 먹을거리, 축제 등을 담았다. '첨단기업도시', '스포츠의 도시' 등 수원시의 브랜드도 소개한다. 경이로운 도시, 누구나 오고 싶은 도시로서 수원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수-원더랜드'는 팔로워가 131만 5000명에 이르는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채널과 수원시 공식 유튜브에 게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더랜드가 수원을 잘 아는 분들에게는 수원의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고, 수원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경이로운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범상/기자



광명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해 청소년 노동인권을 마주하다!

광명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앞두고 27일 롯데시네마(크로앙스 7층)에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280여 명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선포됐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함께 존중하고 준수하며, 그것을 증진하기 위한 약속이다.

시는 올해로 올해 75주년을 맞이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앞두고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과 영화 '다음 사회'를 관람하고, 실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특성화고 졸업 후 실습 현장을 경험한 청년 등과 인권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다음 사회'는 2017년 전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노동 현장에서 만나는 인권침해와 알아야 할 권리 등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윤용민/기자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들은 "영화와 인권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 노동 현장의 현실에 대해 보고, 듣고, 이야기하며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야기르 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등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인권 갤러리 ▲인권 콘서트 ▲음악으로 만나는 인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정소식지 문체위원장상·유튜브 최우수상'경경사'

최대호 안양시장 "모든 세대 함께 공감할 다양한 콘텐츠로 적극 소통"

안양시의 시정소식지 '내맘앳 우리 안양'이 제33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상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사보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기업·협회·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작하는 인쇄사보·전자사보·방송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총 25개 부문을 120여명의 심사위원단이 심사했다.

내맘앳 우리안양은 원도심 만안구에서 30년 이상 운영 중인 노포를 소개하는 '만년가게'코너를 신설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노포와 추억을 함께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시니어의 활동을 소개하는 '은빛배움터',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유하는 '시민공감'등 시민과의 소통·공감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음성변환용 프로그램인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해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도 음성으로 시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우용/기자

아울러 시는 제9회 '올해의 SNS' 유튜브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의 SNS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시민이나 고객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SNS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안양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시민 유튜브 운영, 시민참여 시정홍보 영상, 전 국민 대상 유튜브 숏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이나 정보를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쉽고 재미있게 제작한 '안양하세요'와 핵심 정보를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한 '일타강사 안쌤', '안양 숏타임'등은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

특히 붓꽃 명소 버스킹(거리공연), 안양축축제 현장 생중계를 통해 시민과 실시간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내 시민 소통 채널로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이 안양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주)에이텍으로부터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기탁 받아

올아파트를 찾은 (주)에이텍 임직원들은 고향마을 영주귀국자 노인회에서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각 가정마다 김치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2021년 이후 영주 귀국한 신길동, 초지동, 반월동 거주 사할린동포들에게도 빠짐없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주출훈 고향마을 노인회장은 "매년 잊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이 후원받은 김장김치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소은 복지국장은 "어르신들이 고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주)에이텍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안산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안산시는 지난 25일 (주)에이텍으로부터 관내 거주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500박스(박스 당 10kg)를 기탁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주)에이텍은 PC업계 최초 혁신제품 선정 기업으로 공공시장 ICT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사업보국(事業報國)의 기업정신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김장절마다 관내 사할린 동포를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고향마을

이동환 고양특레시장,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전국 지자체장 최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드 뉴스로 시정 소개, 함께 생각하는 기회 공유

이동환 고양특레시장이 전국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장은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문(카드뉴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레시장 스타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드뉴스'를 꾸준히 게재해 왔다. 이 시장의 카드뉴스는 고양시 주요 정책과 시정 방향을 시민에게 알렸다고 국경일과 기념일, 명절에는 '시민들과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공유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동환 고양특레시장 스타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드뉴스'는 108만 고양특레시의 도시 브랜드에 걸



맞게 혁신적 아이콘, 새로운 디자인과 메시지,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시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손바닥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우주를 탐험하고 실시간으로 온 세계가 뉴스로 채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드뉴스는 핵심 키워드를 최적화시킨 메시지와 스마트한 디자인의 독창성이 중요하다. 이번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은 시민들과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소통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뉴욕 페스티벌(New York Festivals)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우수 창작물을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홍보 분야 대표 시상식으로 꼽힌다.

한영기/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모든 장애인이 시민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삶을 누리도록 최선 다할 것"

24일 '202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직원연수'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오후 4시 성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직원 연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성남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개회선언, 축사, 표창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성남시 3만 5000명의 장애인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

아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야간돌봄 운영,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지킴이 사업, 긴급돌봄 지원시간 확대, 청년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최종중 발달장애인 가족 인정, 가족 한마음 힐링 워크숍 등의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이 시민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제17회 기획전시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신이복 초상 유지초본'展개최

화성시 역사박물관이 오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제17회 기획전시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신이복 초상 유지초본'展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18세기 후반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까지 올랐던 정남면 백리 출신 관료 '신이복'의 '초상화 유지초본'의 제작기법 분석과 제작과정 재현 전시를 통해 초상화 유지초본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전시는 ▲1부 '완성으로 가는 첫걸음, 초본(草本)' ▲2부 '기름먹인 종이, 유지(油紙)' ▲3부 '완성으로 가는 여정, 신이복 초상 유지초본의 과학적 분석' ▲4부 '유지초본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4개 주제로 구성됐다.

1부 '완성으로 가는 첫걸음, 초본(草本)'에서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작

품의 골격을 잡거나 연습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초본'을 소개하고, 문학작품의 문장이나 표현을 가다듬은 초본, 수를 놓기 위한 수본,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초본 등 다양한 초본 유물을 전시한다.

2부 '기름먹인 종이, 유지(油紙)'에서는 유지의 제작 방법과 특징을 소개한다. 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생지(生紙)에 여러 종류의 기름을 먹이거나 또는 가공지로, 방습·방수성이 우수하고 투명한 성질을 가져 예로부터 초상화 초본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예술작품 제작에 사용됐다.

3부 '완성으로 가는 여정, 신이복 초상 유지초본의 과학적 분석'에서는 신이복 초상 원본의 세밀한 조사와 XRF(X선 형광 분석), 현미경 조사와 같은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진 제작기법과

사용 안료 등 유지초본의 특징을 소개한다. 또한, 신이복 초상 유지초본의 조사와 제작과정 재현, 비단본 초상화 제작까지의 과정을 담은 노기훈 작가의 영상도 전시한다.

마지막 4부 '유지초본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서는 그린 이의 깊은 사색과 노력을 거쳐 완성된 유지초본이 초상화로 제작되기까지의 8단계 과정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 준비과정에서 발굴된 신이복 초상을 비롯해 유지안료(靛藍), 3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주어지던 수레나 가마를 덮는 가리개) 재현품, 유상(油衫, 기름 먹인 우의) 재현품 등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지공예품과 초상화 제작에 사용된 전통 안료의 실물을 관람할 수 있다.

양시현/기자



또한, 12월 6일과 8일에는 초본과 관련한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정두희 영남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의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기획전에서는 열굴 전면의 주름과 수염의 짙진한 묘사, 사모 날개와 단령의 배채 등에서 정본의 완성에 도달하려고 했던 화원의 노력과 신이복 초상 유지초본의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회 개최

올해 성과 공유하고 우수 협의체 사례 발표... 우수 협의체·유공자 표창 등

용인특례시는 지난 24일 시청 에이 스툴에서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을 한해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한숙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유림동(유림동 행복 나눔 프로젝트), 신갈동(홀로 가구 맞춤 행복 지원), 풍덕천2동(청춘씨네), 서농동(사랑의 고구마 나눔 농사 일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단체 부문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길환(포곡읍), 전연수(모현읍), 이연선(원삼면), 박승만(양지면), 노영희(중앙동), 홍현숙(유림동), 고광현(동부동), 우재혁(신갈동), 권영지(서농동), 홍승모(구성동), 문석수(마북동), 허정숙(동백1동), 홍종락(동백2동), 윤미숙(동백3동), 장일문(풍덕천1동), 오본례(풍덕천2동), 박순구(죽전2동), 나현희(죽전3동), 변순옥(상현2동) 등 19명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날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해 동안 활동 해온 영상을 상영하고, 유림동, 신갈동, 포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수사례 발표를 했다.

을 한해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고, 포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우수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한숙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올 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캠페인부터 다양한 특화 사업들까지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시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21세기형 공동체의 좋은 모델을 만드

는 활동을 하도록 내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리 용인특례시가 좀 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도시, 따뜻한 도시가 되어 가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협의체 위원들의 활약 덕분"이라며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역 내 대학들과 협업체 아카데미도 열고 중장년층 1인 가구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올 한해 마무리 잘 시고 내년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간부공무원 결의대회 개최

이천시는 11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천시 공직문화 개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천시의 6급 이상 공직자 4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천시 공직자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과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여한 공무원 전원이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최근 일부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연발연시를 맞아 시민들로부터 청렴

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이 바로 선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개선 5대 준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공직문화를 쇄신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이천시 공직자의 결의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한 5대 준칙으로는 △법과 원칙 준수 및 성실한 직무수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 조성 △음주로 인한 사고 방지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업무수행으로 정하여

시 공직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천시 공직사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청렴과 공직기강을 새로 확립하는데 앞장서고 이천시 공직자 전원이 동참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을 힘나게 하는 이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의정부시 승격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의정부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정체성 고찰'

의정부문화재단, 11.30(목)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 일환으로 개최

(재)의정부문화재단은 오는 11월 3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의정부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정체성 고찰"이라는 주제로,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의정부의 역사문화자원을 돌아보고 이를 기초로 미래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와 시민을 초청하여 주제별 연구 발표와 토론의 자리를 갖는다.

한성대학교 강성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주제 발표는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작동'을 통해 본 의정부시 정체성 성립의 방향(박수진 성균관대학교 교수)을 시작으로 '조선 초기 국왕의 의정부 지역 행차와 의례적 성격'(이왕무 경기대학교 교수), '조선시대 의정부의 설치와 운영'(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발표에 이어 '근현대 의정부 문학의 흐름과 특징'(김준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의정부 근현대 건축 유산과 그 활용 방안'(최호진 자음건축도시연구소 소장), 마지막으로 '의정부 조선 역사 관련 문화행사 고찰'(박성진 ㈜에문관 대표)에 대한 발표까지 총 6개 분야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단순 발표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학술지에 개별 등재하여 의정부의 역사문



화자원과 도시 정체성 확립에 대한 보다 폭넓은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부에서는 한성대학교 권기중 교수를 좌장으로 한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이규철 성신여대 교수, 송양섭, 박수빈 고려대학교 교수,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그리고 윤여빈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져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정돼 있다.

의정부문화재단 박희성 대표는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우리 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돌아보고 새로운 의정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오프라인 행사는 물론, 의정부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여 도시의 역사문화자원과 정체성 확립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순천시, 김영록 도지사과 함께한 순천시민과의 대화 성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확대, 다양한 분야의 시 건의 사항 검토·반영

순천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순천시민이 함께하는 '2023년 도민과의 대화'를 27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노관규 순천시장, 서동욱 도의장, 정병희 순천시시장, 도·시의원, 각 기관·단체장과 여성, 청년 등 250여 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특히, 순천대학교 학생회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의 캐리커처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선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상영, 도·시정보고, 도민과의 대화,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영록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직접 주재하여 건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대화에 참석한 시민들은 ▲주암농공단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건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2호선 우회도로'반영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속 추진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박람회 지원 감사 및 정원사업 지속 지원 ▲정원과 함께하는 대규모 예술축제 개최 등 다양한 요청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도지사는 "주암농공단지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신속히 완료하고, 희생자 유족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원문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순천시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정원에서 대규모 예술축제 개최도 시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원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써 올 한해 순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큰 힘이 되어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호남의 새로운 미래와 동부권의 성장동력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미래도시 이정표 순천...전남의 중심도시로"

순천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건의 및 우회도로 건설 등 건의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우뚝서고 있다"며 "글로벌대학30 선정까지 순천에 경사가 많았다. 모두 순천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다"고 화답했다.

순천시는 이날 재해위험도 C-D 등급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있는 승주읍 유평리 인근에 시설을 정비해 필요하며 5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곳은 재해위험도가 높은 붕괴위험지역이므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한 도민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김호숙 도사동 통장협의회 부의장은 "도심을 관통하는 국도 2호선이 도심 확장과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 등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해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현재 국도교통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자체 수요조사가 끝난 뒤 초기 검토단계에 들어갔다"며 "전남도는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을 통해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금옥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순천이 정원문화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전남도의 지속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국에서 정원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명실상부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됐다"며 "순천 정원문화산업 육성 관련 신규사업 국고 확보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도민들은 주암농공단지 인근마을 진입 우회도로 개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속 추진, 정원과 함께하는 대규모 예술축제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선 순천대 총학생회 측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글로벌대학30' 선정과 관련해 전남도의 적극 지원에 보답하는 캐리커처와 롤링페이퍼를 김영록 지사에게 직접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완도 해양치유센터, 전국 첫 개관

명상·해수 등 3개 품종과 머드·저주파 등 9개 테라피 갖춰

전라남도는 전국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센터가 24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이 추진 중인 나머지 권역은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이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2023년까지 국비와 도비 208억 원 등 총 354억 원을 들여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 1만 6천465㎡ 부지에 연면적 7천 74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완공됐다.

해수·갯벌·해조류 등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 건강증진 등을 위해 ▲팔라소·명상·해수풀 3종의 품종 ▲머드·바스·저주파·향기·스톤·음악·컬러·소리·해조류 거품 등 9종의 테라피를 포함해 16종의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주변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체험공원이 조성돼 힐링, 휴식, 치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의료, 관광, 바이오 산업이 융·복합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 호텔(리조트), 골프 테마파크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함께 해양치유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북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받아

전북도 국내 두 번째 많은 세계유산 보유단체로 향후 가치 조명과 활용사업에 지원 강화



전북도는 27일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서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최용천 문화재청장의 기

념사를 시작으로 각 고분군 소재 지자체장의 축사, 세계유산 등재 기념영상, 유공자 표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등재 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

한편, 세계유산으로 등재는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1년 1월 유네스코로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조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9월 24일에 실제 등재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10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전북도는 학계 및 시민과 함께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가야문화유산을 새롭게

찾아내고, 조사·연구하고, 그 가치를 밝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세계인이 전북 가야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게 됐으며, 앞으로 함께 누리고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받은 쾌거를 거두었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남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문화재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전북 가야사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로서 세계인과 함께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제3기 수료식 개최



전남 함평군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제3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제3기 수료식이 이상의 함평군수, 윤영량 함평군의회위원장, 군의원, 수료생과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귀농·귀촌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27명의 교육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센터는 지난 1월 제3기 입교자를 모집, 총 20세대 28명을 선발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

기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별히 지원자에 한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활동도 실시했다.

또한, 선도농가 현장방문 등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민과의 융화프로그램 등 실무 위주 교육으로 구성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료식을 마친 3기 교육생 가운데 12세대 총 12명이 함평 정착을 희망했으며 군은 앞으로도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를 통해 더욱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함평군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료식을 마친 3기 교육생 가운데 12세대 총 12명이 함평

정착을 희망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앞으로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신규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는 예비 농업인의 귀농 실용단계에서의 두려움 해소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 2021년 문을 열었다.

김영진/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다시 운암마을 주민과 밀착 소통

11번째 찾아가는 마을좌담회 가져... 마을 경로당 보수 등 건의사항 청경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주 윤병태 시장이 다시 운암마을 주민들과 11번째 마을좌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시장 취임 후 매달 한 차례씩 마을회관을 찾아가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는 윤병태 시장은 운암마을 경로당에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윤 시장은 급격히 추워진 날씨와 농번기를 맞은 주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이날 좌담회 시간을 기존 오후 7~8시 저녁 시간에서 오후 3시로 앞당겨 진행했다.

좌담회엔 노상수 다시면장과 운암마을 정중남 노인회장, 최숙희 이장, 문순화 부녀회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

주민들은 완공 후 20년이 넘는 노후 경로당 보수를 입 모아 건의했다.

최 시장은 "경로당 지붕 누수로 내부 천정에 곰팡이가 보이고 벽지·장판이 오래되어 주민들이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있다"며 경로당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윤병태 시장은 "실제 현장에 나와서 보니 주민들이 불편함이 크셨을 것 같다"며 "주민 소통 사랑방인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지붕 보수 작업 등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운암마을 주 소득원인 양파 수확 현황, 마을 내 귀농·귀촌인 영농 애로사항, 내년부터 63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유

무, 마을 경로당 입식테이블 보급, 경로당 급식비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좌담회 이후엔 내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예정인 운암천 소하천정비 사업 대상 구간, 마을 입구 600여년 된 보호수 등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힘써온 주민들을 격려했다.

다시 운암마을을 명칭은 마을 뒤편에 구름 바위가 있어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서 운암(雲巖)이 됐으나 본디 삼초골, 삼작골 등으로 불리웠다.

현재 38가구 주민 59명이 살고 있으며 세대 수는 적지만 주민 간 화합이 좋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등 마을경관 개선에 앞장서는 마을이다.

김영만/기자



전북도, 4개 특별자치시·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선도키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연대협력 강화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 발족, 제도개선 추진강화 시동

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등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4년 말까지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네 번째로 출범하는 전북도는 내년 1월 출범에 앞서 3개 시도가 걸어간 길을 주의 깊게 보며 전북형 특례를 발굴했고, 이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3개 특별자치시·도지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라며, "특별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인 만큼 4개 시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도는 향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 뿐 아니라 국제포럼 및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사랑의 김장 김치! 기쁨 한가득 온정 나눔 실천

전남 구례군은 11월 21일부터 3일간 용방면 지용관에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례군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450명이 참여하여 김장 김치 약 10,000kg을 담가 저소득가정 554세대와 경로당 296개소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담그고 전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여성단체협의회 최경옥 회장은 "매년 김장 자원봉사를 참여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하다"며, "사랑의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가 함께 모은 손길 하나, 마음 하나가 우리 구례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빛낸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치를 담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이번 행사에는 구례군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450명이 참여하여 김장 김치 약 10,000kg을 담가 저소득가정 554세대와 경로당 296개소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담그고 전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여성단체협의회 최경옥 회장은 "매년 김장 자원봉사를 참여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하다"며, "사랑의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가 함께 모은 손길 하나, 마음 하나가 우리 구례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빛낸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치를 담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진도군, 친환경 국제인증(ASC) 수산물 판매 확대 업무협약 체결

다자협력형 해양양식업 친환경전환 관련

진도군이 23일 친환경 국제인증(ASC) 국제인증을 받은 친환경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도군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 (주)을가홀푸드 - 친환경 국제인증(ASC)양

식어가가 전북 중심의 진도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또한 군은 양식장 해양오염 감소와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진도전복섬영어조합법인과, 2023년 9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협

력해 조도지속가능전복협회를 대상으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을 취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국제인증(ASC) 전복과 친환경 농수산물을 오는 12월부터 (주)을가홀푸드를 통한 공동 판매를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판매 지원

김영민/기자

활동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군의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판매촉진으로 진도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보성군, 시정연설로 2024년도 군정운영 방향 청사진 제시

'유지경성'의 뜻을 담아 "목표는 반드시 이룬다." 의지 표명

보성군은 27일 열린 제298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설에서 김철우 군수는 2024년을 민선 8기 시책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만드는 해로 여기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다시 뛰는 보성 3·6·5'를 달성하기 위해 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보성군은 ▲종합청려도 1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상, ▲보건복지 분야 6관왕 달성,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 ▲2,000억 원 규모 여차만 국가갯벌 해양정원사업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도입, ▲보성사랑상품권 372억 원 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등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

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있는 발전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보성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복지600사업, ▲농어민 공익수당 120만 원 연차 확대, ▲보성기위 적극 육성, ▲맞춤형 청년농업인 정책 운영, ▲남해안 해양관광지의 중심 보성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특색 있는 산림자원 활용 공간조성, ▲조성제2농공단지 조성,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 준공,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안심하고 깨끗한 물 공급, ▲어업기반시설 마련 등을 각 분야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23년 대비 230억 원 증가한 81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 교체, 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가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내년도 본 예산안으로 2023년 본예산 6,202억 원보다

최원영/기자

6.11%(379억 원) 늘어난 6,581억 원의 군의회 제출했다. 일반회계 5,723억 원, 특별회계 858억 원이다.

분야별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가장 많은 1,837억 원(27.91%),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1,425억 원(21.65%), ▲환경 분야 1,203억 원(18.28%), ▲지역개발 교통사업 분야 521억 원(7.91%), ▲문화 및 관광 분야 337억 원(5.12%) 등으로 편성했다.

김철우 군수는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올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세가 줄어 548억 원가량이 부족하게 됐고, 내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줄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동안 적립해온 재정안정화 기금 1,500억 원을 투입해 사회, 복지, 문화,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 어느 분야도 소홀하지 않고 주요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경북도, 김장김치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

민족의 고유문화 김장김치... 정체성 확보, 이웃과 연대, 국민 대통합 상징

경북도는 11월 27일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발판으로 국민 대통합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경북의 힘으로 국민 대통합 김장대전'을 도청 전경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2개 시군 김장김치 대표팀을 비롯한 도내 봉사단체인 새살림회, 초록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이주민여성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인 김장김치로 이웃과의 연대감과 나눔, 국민 대통합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다.

김장대전은 '경북의 힘으로 국민 대통합' 퍼포먼스, 22개 시군의 특색있는 김장김치 담그기, 국민 대통합 상징 인물이 참여하는 김장 나눔 행사로 진행되어 도내 지역별 다양한 김장재료로 담긴 김장김치를 선보였다.

특히 포항의 갈치김치, 경주의 전정김치, 봉화의 사과김치, 예천의 수해 피해 농작물로 담긴 김치 등 지역의



특색있는 김장재료를 활용, 경상북도의 독특한 김장문화를 엿볼 수 있었으며, 담긴 김장김치를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김장의 사랑·연대·통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경북의 힘으로 국민 대통합' 퍼포먼스에서는 시군 대표팀, 이주민

여성, 사회적 약자, 청년 기업인, 봉사단체 대표가 참여해 김장김치의 재료를 버무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듯,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융합한 확실한 지방시대로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어가는 경북도민의 결의를 다졌다.

를 다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격려 말씀을 통해 "김치와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김장, 한국에서의 김치만들기와 나누기'이다"라며, "김장은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체성과 통합의 의미를 다지고, 나누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이웃과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여 국민 대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며 김장김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243개 지자체, 이북5도 및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전국의 김장재료를 하나로 모아 김장을 담그는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대통합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군위경찰서 편입에 따른 자치경찰 치안 종합 점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제5차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5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7.1.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24.1.1.자로 군위경찰서 대구경찰청으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의 범죄·생활안전 대응 체계 개편 사항을 포함해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군위군 편입에 따른 자치경찰 분야 치안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구경찰청은 군위경찰서 편입에 대비해 범죄예방 분야별 치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점검했으며, APO(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및 117센터 시스템을 정비해 신고 처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며, 성·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대구지역 상담소와 보호

시설로 연계토록 대구광역시 및 경북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운영 및 적정 설치 여부,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해 군위군과 협조해 교통안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관계 부서 및 대구교육청은 군위군 편입에 따라 추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 군위군민 추가, 요보호 위기청소년 발생 시 '대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시보호소' 등 연계, 교통안전시설 통합 운영 등 교통 분야 지원 대책, 군위군 재난 특성예 맞는 소방 안전대책, 군위군 학교 주변 안전 확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업 대상 확대 및 협력 강화 대책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후 관계 부서 간 서로 보완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은 "군위군 편입으로 더 커진 대구의 안전을 위해 치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협의회 관계기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와 국토부, 동부산권 교통인프라 구축 위한 현안사업 현장 점검

11.27. 13:00 월희룡 국토부 장관, 기장군 방문... 기장군 현안사업 현장 점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기장군 일원의 동부산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부산권 주요 현안인 도로 및 도시철도망 건설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동부산권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길 원하는 동부산권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장 방문은 반송터널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노포-정관선(1단계) 현장 방문에 이어 주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동부산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 반송터널을 조속히 추진하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증가는 동부산권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한다.

반송터널이 건설되면 부산의부순환도로의 마지막 잔여 구간이 연결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장군 월평리에서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을 건설해 광역철도와 연계한 순환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생활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을 잇는 철도교통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산 중심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강화되고 지역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이날 기장군 정관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는 원 장관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기장군수,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경청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부산권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순환 형태의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영주시청 직원 화합 대축제 '영화제' 개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영주시"



영주시는 2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영주시청 직원 및 가족, 내빈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시청 직원 화합 대축제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는 식전행사, 개회식, 화합 한마당 총 3부로 진행됐다. 이날 일정은 시청 직원 밴드 티닥스의 공연에 이은 개회 선언 및 선수대표 선서로 시작됐다.

축제의 메인 이벤트인 화합 한마당은 대형에드빌론 릴레이, 고무신 멀리 던지기, 스피디 파도타기, 청충판 뒤집기 등 직원과 가족

들이 함께 뛰는 경기로 진행돼 참석자들은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직원 화합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침체됐던 내부 분위기를 오랜만에 활기를 띠게 했으며, 추운 날씨도 잊을 만큼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 축제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 간 유대와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하나를 뚫을 땀 흘린 영주시가 돼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청송군, '2023년 군민배심원단'회의 개최

군민과 함께 완성해가는 공약 실천

청송군은 민선8기 청송군수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를 위한 '2023년 군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11월 24일에 개최했다.

군민배심원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후 최종 전화면접을 통해 청송군민 28명으로 구성됐다. 군민배심원제도는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군민 직접 참여제도로 청송군은 민선7기부터 군민배심원단의 심의와 권고를 통해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배심원단은 한 달 동안 조정이 필요한 공약실천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작년 군민배심원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73개의 민선8기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현공약이 되지 않도록 공약이행에 있어 청송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청송군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배심원단 1차 회의는 매니페스토 교육과 배심원단 기초 강의 및 보임 구성으로 진행됐으며, 12월 1일 2차 회의에서는 공

약 조정안건(4건)과 공약 평가안건(6건)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과 배심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12월 15일 3차 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체 투표로 공약조정 적정여부를 최종 승인하며, 배심원단의 공약이행평가에 따른 권고안을 청송군에 제출하게 된다.

청송군은 군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최종 권고안을 공약사업 부서에서 검토 후 배심원단 권고안을 2024년 2월 중에 청송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윤근수/기자



오도창 영양군수, 민선 8기 시정연설을 통한 '2024년 군정방향' 제시

오도창 영양군수는 11월 27일 제28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민선 8기 두 번째 시정연설을 통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있어 "군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 군수는 "세계적 안보 리스크로 인하여 국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어 군민생활 안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2024년은 이대까지 뛰어난 초석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사업'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민생안정, 주민복지 향상,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동력 사업 성장을 중점으로 군민과 함께 영양이 커지는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1년 6개월 그중 올해는 전 군민이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과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면서 타 유치 경쟁 시군과 차별화된 새로운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지속 추진,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협약 체결, 동-하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지역축제 활성화, 자차나무숲 힐링허브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민자(SK텔레콤) 천체관측소 건립 진행, 31번 국도

신형개량사업 추진, 담곡터널과 무창-창수 터널 개통, 청기 장갈령 터널 개통 예정, 마령-산해, 청기 당리 터널 설계 진행, 남북9축 고속도로 사선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50세 이상 군민 건강검진지원, 70세 이상 군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목록 및 이·미용비 증액 지원, 생활민원바로처리반 확대 추진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2024년 영양군의 중점 추진과제는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촌 만들기 ▲생태관광으로 생활 인구 증가 ▲함께 번영하는 조화로운 군정발전 추진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생물인프라 확충 ▲사람이 먼저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7대 목표로 내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양군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 감소한 3,7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442억 원, 특별회계는 351억 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분야에는 752억 원, 산업, 도로·교통 및 지역 경제개발 분야 603억 원, 환경분야 490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718억 원, 일반행정 분야 309억 원, 문화관광 분야 312억 원, 기타 및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 609억 원을 책정했다.

오도창 군수는 "2024년도 예산안은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고, 남은 민선 8기는 지난

시간 동안 닦아온 초석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먼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겠다"라며 "군이 군민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군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 말과 함께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폭설 신속 대응한다...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군도, 농어촌도로 171개 노선 610km 정비

예천군은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2월 8일까지 사전 점검에 나선다.

군은 겨울철 강설과 도로결빙에 대비해 관내 제설장비와 자재 등을 확충해 강설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착기와 덤프트럭, 도로보수원 등을 동원해 관내 도로 171개 노선과 시가지 등 38개소에 제설용 방방사(미끄럼방지모래) 및 모래주머니를 배치했다.

강설 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도록 읍·면에 배부된 트랙터 부착용 삽날을 점검하고, 지난해를 수해로 인해 유실된 삽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각 마을 제설반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제설용 비축모래와 염화칼슘을 12개 읍·면에 충분히 공급하고 은풍면과 지보면, 예천읍 통명리에 있는 적치장에

제설용 모래와 저장탱크 염수용액을 충분히 저장한 후 폭설에 조기 제설작업을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호명면 산합리, 유천면 매산리 2개소에 염수용액 저장탱크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겨울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완벽한 설해 대책 추진과 사전 준비로 동절기 강설·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덕군 지사협 여성보육분과, 도시문화 체험 활동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험 활동 가져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광열, 민간위원장 이희원) 여성·보육분과는 지난 18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포함시로 도시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분과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저소득층 아동 1일 부모 되어 주기 프로젝트 2탄'으로 추진됐으며, 3D영화관 애니메이션 관람과 패밀리레스토랑 식사를 통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자기 체험 활동으로 창의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했다.

하삼목 분과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다소 걱정을 했으나, 함께 활동하는 내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고,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성·보육분과는 올해 분과 회의를 통해 관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 탈 영덕을 막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제안 및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문화/기자



'2024년 영농준비는 예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갑진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월 5일부터 총 15회 진행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는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농업인회관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농업 발전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총 15회에 걸쳐 830여 명의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육은 지역 특성 및 농업인 수요를 반영해 양잠, 시설채소 환경관리, 토양관리 등을 새롭게 편성해 12월 5일 쪽파과정을 시작으로 14개 과정은 오후 2시부터, 12월 20일 포도과정은 오후 13시부터 시작한다.

정금자/기자



특히, 올해는 지역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작목 기술을 운영 과정에 반영했으며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정과제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과 연계 교육을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참석하면 된다.

성백경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습득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예천군의 성공적인 2024년 농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도,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받아

경북의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 세계적으로 인정



경북도는 11월 27일 문화재청이 개최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7개의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지자체장들과 함께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가야고분군은 지난 9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이날 문화재청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전달받은 것이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경북은 유교·신라·가야의 3대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내 최대의 세계유산(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한 문화중추도 경북의 위상이 더욱 확대됐다.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계획을 수립했고,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경북의 탁월한 세계유산을 앞세워 미래 경북의 문화관광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세계유산(태실, 누정), 기록유산(만인소, 편액, 내방가사), 무형유산(한지·전통 활문화) 등의 신규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북을 명실공히 세계유산의 중심지로 우뚝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경북의 신라·유교·가야 3대문화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쾌거"라며, "경북은 세계유산의 보고(寶庫)인 만큼 전통 문화자원을 전승·보존하고 미래 먹거리로 적극 활용·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황촌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준공... 지역공동체 회복·도심활력 증진 기대

42억 3000만원 들여 황촌복합문화센터 조성... 주민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체 공간 제공

폐역이 된 경주역 인근에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심활력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섰다.

경주시가 경주문화관1918(옛 경주역) 동편 행복황촌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황촌 마을활력소' 준공식을 27일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시의장, 이동협 부시장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도의원 및 황오·성동동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총 사업비 42억 3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 황촌 마을활력소는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제공을 포함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됐다.

총 면적 871.44㎡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황촌 마을활력소는 △1층은 작은 도서관과 전시관을 △2층은 코워킹룸, 동아리방, 건강상담소 등을 △3층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강당으로 꾸며졌다.

황촌 마을활력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



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생활 공간은 물론 외부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회의, 컨벤션 기능 등 이를 그대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3년간 행복황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육성된 주민 동아리의 서예, 사군자, 민화, 캘리그래피, 어반스케치 작품 등 및 경주시 문화도시 사업으로 진행한 감성미술, 유리공예 작품 등이 일련에 전시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촌마을활력소의 준공과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안동시 농업 유통·특작 분야에서 '11개 공모사업 선정'

희망이 있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 총력

권기창 안동시장, "이번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열악한 선별 환경 개선, 노동력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지역 영농에 큰 활력이 돼도록 최선을 다해"



안동시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유통·수출, 과수, 채소 등 4개 분야에서 11개 국도비 공모 사업(156억 원)에 최종 선정되었다.

▲유통지원 분야에서는 스마트산지유통기반구축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6억4천만 원이 확정됐다. 산지유통시설의 집하, 선별, 포장 등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는 국도비 공

모사업으로 총 55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농식품부의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우영, 산약(마)등을 활용한 사업 1개소가 선정돼, 국도비 5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도비) 5

▲과수화훼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2개 지구가 선정됐다. 녹전면(녹래), 임동면(고전) 2개 지구 수혜면적 158ha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74억 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투입해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해 시장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소특작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안동시 서안동농협이 최종 선정됐다. 발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해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서안동농협에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농민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하며, 공동영농을 위해 필요한 전동지게차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가공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함께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바라며, 열악한 선별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 이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을 통해 지역 영농에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힘! 미래를 디자인하다

경북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11월 2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3년 경북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과발표(사업 추진 성과, 참여기업·참여대학 우수성과 사례 발표) △초청강연(국내 유통·마케팅 관련 전문가 강연) △성과전시(2023년 지원 우수 결과물 전시)로 마련됐다. 경북 소재 디자인학과 관련 대학 학생과 지도교수, 도내 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디

자인 개발 결과물과 참여기업의 우수사례 성과, 대학 연계사업인 온라인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 성과 등을 발표하고, 경북 지역의 디자인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국내 유통·마케팅 관련 전문가인 티몬(TMON,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생사업팀은 디자인 및 마케팅 사례 정보 공유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트렌드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한 '경북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생산력을 가졌으나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

디자인을 지원해 지역 기업·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제품·브랜드·마케팅·전(全)주기·온라인물 상세페이지 디자인·디자인 애로해결·디자인전문기업 지원의 7개 분야 254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으며, 특히 도내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대표적으로 칠곡군의 (주)삼우티시스는 복합재료제품 전문기업으로 '미세먼지 관측용 스마트 라이더' 통합 브랜드 디자인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관측 라이더의 인지도 확립 및 해외 수

출 등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매출액('23~'26년) 156억 원이 기대된다.

특히, 올해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산 소재 위미웍스는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우수디자인 전문기업에 선정됐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산업 구조 변화로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되고 심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명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집수리' 실시

부산 동래구 명륜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9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한세대를 방문하여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중현 명륜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벽과 천장에 생긴 곰팡이로 주거 환경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독거노인의 방과 거실을 새롭게 도배하고 누수 배관을 수리하여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서 기쁘다"고 말했다.

박수정 명륜동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독거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성불사, 금정구에 이웃돕기 성품 기탁

성불사는 지난 25일, 복지시설, 저소득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금정구(구청장 김재운)에 김장 김치 300박스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김장 김치는 성불사 신도회 회원들이 김성 들어 직접 담근 김치로, 성불사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품을 꾸준히 지원하여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도목스님은 "추운 겨울철 어려움

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품을 기탁 하게 됐다"라며, "정성이 담긴 성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기탁된 성품은 사랑의 열매(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부산시, '2023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 개최

1.28.~11.29.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

"미용인과 부산시민들이 함께 즐기자!"

부산시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3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은 부산의 우수 미용인재를 발굴하고 미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용 분야 기능경진대회뿐만 아니라 학생 진로체험, 버스 운영 등으로 미용인과 부산시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용분야 기능경진대회 ▲뷰티셀럽강연 ▲시민참여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개막식은 11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부산시, 미용위생단체장, 미용대학교수진 등을 비롯해 부산시민들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막 축하공연으로는 이요돌 외 무용단원의 댄스퍼포먼스와 민우혜아티스트의 헤어쇼 오프닝이 준비됐다.

미용 분야 기능경진대회에서는 헤어, 피부미용, 네일 등 분야별 대회를 진행해 미용인들이 숨겨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 미용인재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대회는 (사)대한미용사회 부산시협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부산시지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부산시지회 등이 주관한다.

이외에도 ▲부산미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퍼스널컬러진단, 피부진단, 메이크업 체험, 미아트사진관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미용대학 캠퍼스 톤 경진대회 ▲미용 분야 유명인(뷰티셀럽) 초청 강연 ▲멘토링 토크쇼 등이 진행된다.

특히, 미용 분야 유명인 초청 강연 시간에는 '뜻밖의 리셉션 이혜영 원장'이 '아

름다운 성공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미용인으로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걸여온 경험에 대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강의할 예정이라, 부산 미용인들이 자신의 꿈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이 부산의 미(美)아트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만큼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산.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미용이 이제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의 관심 대상이 된 만큼, 이번 페스티벌이 미용인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부산의 미(美)아트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내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25% 확대 모집

신노년세대, 역량 활용 일자리 발굴 및 보급 중점



대구광역시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492억 원을 증액한 1,675억 원을 투입해 총 37,62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노노케어, 스크론표 교통봉사, 학교급식봉사, 청소년 선도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에 참여해 평균 11개월간 월 30시간 활동에 29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은퇴자나 경력자 등이 대상이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 10개월간 월 60시간 활동에 달하는 76만 원을 지급받고, 보육·돌봄·청소년시설 지원,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지원, 공공 전문서비스 지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어르신 일자리 제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공약형 27,301명, 사회서비스형 7,294명,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3,031명 등 총 37,626명을 모집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일자리가 전년 대비 4,300명 증가해 대폭 확대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12월 4일부터 구·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나 시니어

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군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 창구 '노인일자리 여기'와 '복지로'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면접 절차를 위해 수행기관에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 최종 선발여부는 접수기간을 통해서 내년 1월 2일까지 개별 통보된다.

대구광역시는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사업을 조기 착수하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시간 조정 등 탄력운영제를 실시하며, 어르신에게 적합한 사업장 창업과 맞춤형 교육에도 추가로 2억 원을 들여 어르신의 취·창업 지원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장은 "노인일자리는 노년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년배 간의 교류 및 사회참여 기회가 되어 노인문제 예방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연륜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트렌드로 알아보는 세대 공감 외식문화' 예천군, 2023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영업주 150여 명 대상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서비스 개선 교육 김학동 군수, "이번 교육이 음식점 서비스 수준 향상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고물가·경기침체 등 어려운 가운데 위생 향상·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준영업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과 청결,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지부장 장인동)가 주관해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온라인으로 교육받지 못한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리드교육컨설턴트 김윤해 대표가 강사로 나서 '트렌드로 알아보는 세대 공감 외식문화'라는 주제로 교육하고, 예천군

청 임만규 위생팀장이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이어갔다.

또한, 음식점의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위생등급제 및 식품 소비기한 시행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도 전달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음식점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영업주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녹색 도시 포항의 모습 담는다! 그린웨이 사진작가 교육 개최

포항시는 26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3년 포항그린웨이 사진작가 전문가 초청 교육을 개최했다.

'그린웨이 사진작가'는 녹색 생태도시로 변화하는 포항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민이 직접 도심, 해양, 산림 등의 그린웨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재능기부자이다.

재능나눔을 통해 공유되는 사진은 포항시의 아름다운 곳곳을 홍보해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녹색생태도시를 가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 초청 강의에서는 김수정 동해대 연구소장을 초청해 동해해면 사진을 예로 인물의 표정과 바다의 생동감을 담아내는 내용에 대해 강의하고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에서 함께 출사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그린웨이 사진작가는 올해 5월에 위촉돼 시민작가로 활동 중이며 지난 상반기에는 두호동행정복지센터 및 영일대 장미원과 송도솔밭 일원에서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촬영한 사진은 포항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에서 시청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시민중심'을 가치로 두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포항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녹색 인프라 확충 전략이다.

올해 개최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그린웨이 청소년 포럼, 그린웨이 아카데미, 수곡아카데미, 정원아카데미, 인문학 토크콘서트, 도시숲 걷기대회, 대한민국맨발걷기대회 등이 있으며, 연말에는 '그린웨이시민추진위원회 연말결산 및 2024년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해 녹색생태도시 조성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경식 그린웨이추진과장은 "그린웨이 사진작가 재능기부 활동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금천구 시흥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선지정... 정비사업 '탄력'

시흥1동 864번지 일대와 시흥3동 95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선지정

금천구는 시흥1동 및 시흥3동 모아타운 대상지가 관리지역으로 선(先)지정됐다고 11월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선(先)지정’이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흥1동 864번지 일대(80,429m²)와 시흥3동 950번지 일대(97,042m²) 두 곳이다.

해당 지역은 모아주택 추진 시 ▲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 완화 ▲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m² 이내 → 2만m² 이내) ▲ 노후도 완화(67% → 57%) 등 각종 완화된 혜택을 받아 조합설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는 2024년 상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부문별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 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5곳이다. 이번 선지정 지역 2곳 외 시흥3동 1005번지 일대(86,705m²), 시흥4동 817번지 일대(30,431m²), 시흥5동 922번지 일대(89,944m²) 3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선지정을 통해 시흥1동 864번지 및 시흥3동 950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울 중구,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 통해 '협력과 나눔의 가치' 되새겨

각계각층에서 힘을 보탤고 다문화가정과 어린이까지 함께하며 화합의 장 열려

서울 중구가 지난 27일 구민회관에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대통합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 중구가 주최하고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한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의 일환이다.

‘봉사과 나눔’에 의미를 둔 만큼 적십자봉사회·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했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지상욱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함께해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신당5동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김장을 즐겁게 체험하며 ‘함께 하나 된’ 김장 나눔 행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행사장 전면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김장 행사가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현장감을 높였다. 계절반찬 봉사단 이숙영 회장이 김장 잘하는 법을 설명하며 행사의 막이 올랐다.

테이블 별로 △김치 버무리기 △김치 포장하기 △박스에 담아 옮기기 등 각자 역할을 맡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따금씩 지칠 때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이날의 구호였던 ‘김치!’를 함께 외치며 힘을 돋우는 등 화합과 협력의 면모로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담근 김치는 560상자 2,800kg에 달하며 모두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 함께 화합하며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눔으로써 이웃 돌봄을 실천하고 따스한 온기를 전한다는 데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장에선 맨 가운데에 특별히 마련된 낮은 테이블의 어린이 참여자들이 단연 돋보였다. 분홍색 두건과 어린이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등장한 어린이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행사에 참여했던 김매(여, 중국, 45세) 씨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보고 싶기도 했고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기쁘게 왔다”라고 참여 계기를 전했다. 다른 참여자인 범수빈(여, 베트남, 38세) 씨도 “하나도 안 힘들다. 김치가 소외계층에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망설임 없이 참여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김장 행사를 통해 중구에서 대화합의 장을 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아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성원/기자



영주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수립...279동 대상

내년부터 5년간 사업비 17억 원 투입, 3·4등급 빈집 우선 정비



영주시는 농촌지역 빈집 279동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 정비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농촌지역은 저출생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후불량 주거지 기능 약화 등으로 빠른 속도로 빈집이 증가하며 정주환경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시는 28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호준 영주부시장, 영주시의회 의원, 관련 부서 부서장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정비계획에는 빈집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양호한 빈집 1등급에서 불량한 빈집 4등급까지 판정된 등급에 따라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철거, 활용, 안전조치 등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계획에 따르면 시의 농촌 빈집은 715호로 전체 농촌주택의 5%를 차지한다. 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큰 빈집 279동에 대해 2024년부터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7억여 원을 투입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별 빈집은 풍기읍(118호), 이산면

(74호), 안평면(70호) 순으로 많았으며 밀집된 지역은 없이 모두 개별 빈집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인구감소 등 사회현상을 반영해 불량한 빈집 4등급(82호), 3등급(173호)에 대해 우선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차별로 철거 보조금을 상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빈집 철거 후 주민편의 공유시설로 활용 및 향후 생활에스오시(SOC)활용을 위한 공유지유보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및 민간자본 투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주거취약지역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빈집정비계획을 초석 삼아 연차별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1년 영주시 전역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2월에는 도시지역(동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빈집 60여 동을 철거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금자/기자

경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강원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개최

4개 특별자치시·도(강원·제주·세종·전북) 간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 및 실질적인 특별자치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속 협력

강원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원을 포함한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 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3일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로 출범하게 됐다.

출범식 당일에는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것을 4개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으로 결의하여 앞으로의 상호 간 지속적인 협력·연대 실천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에 따라 가장 먼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아 사무

국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광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 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연 2회(3월·9월)의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협약 체결 사항과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제도 위상 제고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각 시·도별 중점과제 등에 대해서도 상호 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서 담지 못했던 재정, 행정, 교육, 산업에 있어 보다 강력한 권한을 이양받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원/기자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식

일시: 2023. 11. 27(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국회의원 김광영, 김민호, 최민호, 오영훈, 김광영, 김민호, 최민호, 오영훈
주관: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시간	주요 내용
14:00-14:05	개회 선언
14:05-14:25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식
14:25-14:30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식 기념 촬영
14:30-14:35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식 기념 촬영
14:35-14:40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식 기념 촬영
14:40-14:45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식 기념 촬영
14:45-14:50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식 기념 촬영
14:50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식 기념 촬영

박경귀 아산시장 "올해 사업 점검 및 마무리 철저" 당부

아산시, 27일 12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이 27일 열린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올해 주요 사업의 점검과 철저한 마무리, 내년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24일 아산시가 '2023 한국경제를 빛낸 인물·경영&브랜드' 도시브랜드 부문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고 알리며 "'아트밸리 아산'으로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트밸리' 사업은 추진 1년 반 만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여러 시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문화인프라 결실을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하려는 아산시의 도전과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러 "지금까지 거둔 성과가 '혁신'과 '도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전국 최고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점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노력과 도전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박 시장은 "12월은 한 해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올 한해 아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여러 사업의 점검과 마무리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참여자치위원회와 한해 아산시 대표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시책을 평가받으며 향후 발전 방향 모색 과정도 필요하다. 각 분과는 참여자치위원회 평가보고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내포서 차 대체부품 새 활로 연다

27일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개소식...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기대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활로를 여는 중심 기관인 충남도 내포신도시에 자리 잡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7일 내포첨단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권오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홍성근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 환영사, 축사,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포신도시 내 내포첨단산업단지 건립된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는 1만 5297㎡ 부지에 연면적 9006㎡ 규모로 조성됐으며, 시험동과 사무동 등 총 2동이다.

센터는 등화시험실·기계기구시험실·외장부품시험실·제원측정실 등 22개 시험실과 사무·관리 시설을 구축했으며, 외장부품 관련 14종, 등화부품 관련 11종, 기능성·소모성 부품 관련 33종, 제

원 측정 지원 장비 5종 등 총 63종의 장비를 갖췄다.

센터는 자동차관리법 소관 자동차부품 관련 제도·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업체가 제작한 자동차 대체부품이 순정품과 동일한 품질을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전문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대체부품 인증 시험, 중소 부품업체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 원스톱 인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부품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대체부품 운영 및 심사위원회를 통한 제도 관리 및 정책 지원, 자동차관리법 소관 자동차부품 관련 제도·정책 연구 등이다.

이와 함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 판매 여부, 부정판 방법을 통한 인증 또는 인증 표시 여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등을 조사하는 사후 관리 업무도 맡는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로 도의 주력사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석유화학기초제품, 기타 금속제품 등 후방 산업과 수리 서비스, 택배, 도로 운송 등 전방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중소기업에게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껏 경쟁하고 커갈 수 있는 판을 짜주는 것"이라며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는 원스톱 인증·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지사는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춰 국민의 합리적 소비생활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도는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과 부품산업 육성, 소비자 권의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만식/기자



충북도, 지방세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129억원 발굴

전산조사기법 한몫, 최근 8년간 최대 실적 거양



충북도가 전산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로 10월말 기준 지방세 탈루세원 129억원(도세 100억원, 시군세 25억원, 농어촌특별세 4억원)을 발굴해냈다.

이는 충북도가 지방세 조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변경된 판례와 유권 해석을 수집, 조사기법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산을 활용한 세무조사기법으로 탈루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 낸 성과이다.

취약분야 기획조사는 도에서 탈루가 빈번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망과 각종 공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수집·비교분석 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시군에서는 현장을 확인

하고 과세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분야 23억원,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19억원, △산입단기 감면 분야 18억원, △상속 취득세 분야 11억원, △회생법인 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분야 9억원, △건설경비 축소신고 분야 4억원 등 모두 129억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거나 매각 등 감면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됐으나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경비를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가 누

락된 경우 등이다. 시군별 지방세 기획조사 탈루세원 추정실적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85억원, 진천군이 12억원, 충주시 11억원, 음성군 9억원, 제천시 4억원, 괴산군 3억원 순이다.

충북도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머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들머리보기

길: 걷는 즐거움, 힐링의 공간, 자연의 아름다움,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빛: 밤하늘의 별,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맛: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심: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숲: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힐링의 공간

강들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이로,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침백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박물관, 반딧불이전망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룡발자국,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ida PARKS ASSOCIATION, citi2100, www.yyg.go.kr

안동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 실시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안동시는 전세 사기 예방과 투명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2월 26일까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와 이상 거래·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에 대한 중개업법 위반사항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예정이며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현장에서 즉시 확보 후 경찰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업 공인중개업소에 관련 법령과 강화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거듭 독려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동절기 재난상황본부' 본격 가동

화재 예방 홍보·안전점검 주력...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전남도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4년 2월까지 동절기 재난상황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전기매트,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 사용이 늘면서 주거시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선제적 예방 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겨울나기에 나설 방침이다.

재난상황본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평시에는 화재예방 홍보와 안전점검에 주력하고, 유사시에는 사고 상황 총괄 및 전기, 가스, 통신 등 긴급 자원 동원과 사고 수습을 위한 소방·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화재 상황 접수 즉시 현장상황관리를 파견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 응급의료소도 설치·운영한다.

대형 화재 시에는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상황별 입체적 대응과 사고 수습으로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도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9건이며, 사망 9.2명을 포함, 28.8명의 인명피해와 13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기적 요인(17.9%)과 기계적 요인(8.2%)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의 경우 쓰레기 소각, 불씨 화원방치, 담배꽂초, 논·임야태우기 순이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겨울철 화재에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준하는 선제적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다중밀집시설 화재와 산불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안전한 국호련을 실시해 기관별 재난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박종배/기자

용인특례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억원...최근 5년 내 최고치

지난해 68억원 대비 112% 증가...대기성 자금 최소화한 정기예금 적극 활용

용인특례시가 올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이자 수입을 얻어 주목된다.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연간 이자수입인 68억원보다도 112% 증가한 145억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시가 이처럼 많은 이자 수입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해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 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면서 고액 지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와 사전에 조율하면서 대기 자금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예금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이자율은 다소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수시입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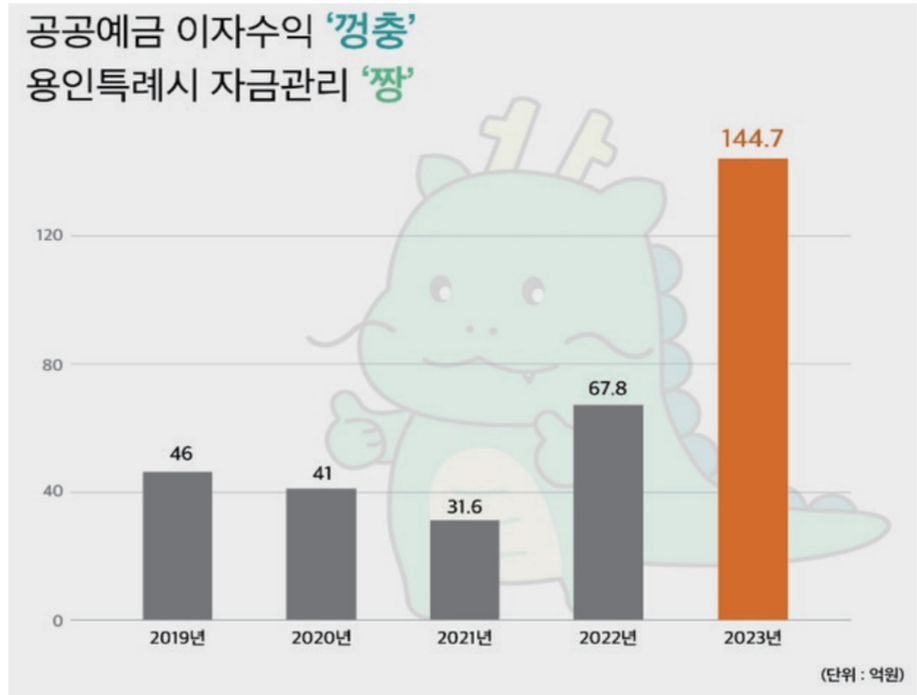
식 예금)를 활용했다.

지출 전 필요한 액수만큼 MMDA를 해지해 사용하고 지출 후 잔액을 다시 최대한 예치할 수 있도록 해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 한 것도 이자 수입을 높이는 데 독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내년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별도 수립해 일일 예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많은 이자 수입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관악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로 선정!

지난 11월 23일, 방문수거운영 부문 우수상(환경부 장관상) 수상

관악구가 11월 23일, '2023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방문수거운영 부문 '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제고를 위해 전국 243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폐전자제품 회수 관련 협회 대내외 전문가들이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 대상자(▲방문수거운영 부문 ▲방문수거활성화 부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방문수거운영 부문은 폐가전 방문수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적('22.9.1.~'23.8.31.) 등을 평가했다.

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침수 주택의 폐가전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폐가전 수거체계를 유지했던 점을 크게 인정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구는 집하장 운영관리 부문에서 ▲서울 서남권 최대규모 집하장 조성 및 운영 ▲소형폐가전 수거함 전체 동 설치운영 ▲청소관련 담당부서 전 직원의 새벽 순찰을 통한 일일 점검 강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는 무상방문수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선 활동 우수사례(▲폐가전 무상방문배출 유관기관 안내 ▲관내 옥외 전광판 및 유튜브, SNS를 통한 홍보 강화)를 배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됐다.

한편, 이번 수상은 구가 '더(THE) ESG 관악'의 실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상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다.

구는 올해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

해 행정에 이에스지(ESG) 정책을 도입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스지(ESG)'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환경(Environment)'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사회(Social)' ▲투명한 기업 운영, 법과 윤리 준수 등을 뜻하는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추구한다.

구는 이번 수상이 '더(THE) ESG 관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훌륭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폐가전 배출을 통해 재활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청정살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북교육청, 중학교 입학생을 위한 진로 진학 지원 앞장

초등학교 6학년 전환기 지원을 위한 '중학교 가는 길' 자료 보급

경북교육청은 중학교 입학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인 '중학교 가는 길'을 제작하여 오는 12월 1일까지 전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학교 가는 길'은 초·중 전환기 진로 교육 집중 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중학교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중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초등학교 생활과 달라지는 중학교 학교생활 △주요 교육활동, 교육과정과 평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 수칙,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관계 △진로 상담과 고등학교 입학 등에 대해 안내하는 진로 진학의 자료를 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항목을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이 함께 자료를 제작했다.

'중학교 가는 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인당 1권씩 책자로 배부되고 웹북 형태로 수업나누리(수업지원포털시스템)에 탑재해 진로 진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내 전 초등학교 홈페이지 팝업 존, SNS, 6학년 학급 플랫폼, 카드형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홍보한다.

경북교육청은 초·중 전환기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박현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전환기를 잘 준비하면 다음 단계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에 이 시기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초등학교 6학년 전환기 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초등학교 6학년 전환기 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산교육청, 어린이 독서체험관 건립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독서교육 거점 넘어 시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하는 어린이 독서체험관을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뽑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제3회 울산시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편을 뽑았다.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는 초등교육과 김서영 장학사가 제출한 '어린이 독서체험관, 독서교육 거점을 넘어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를 뽑았다.

김 장학사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옛 동해분교(북구 당사동) 건물이 규모(연면적 934.43㎡)가 작아 숲, 놀이, 독서교육 중심 체험형 교육기관으로 건립되는 어린이 독서체험관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한된 건축면적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재검토하고, 현장감 있는 안내 자료를 만들어 11개월 동안 울산시의회를 25회 이상 방문해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김 장학사는 결국 울산시의회로부터 어린이 독서체험관 규모를 연면적 2,052.55㎡로 확대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지역주민들의 어린이 독서체험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5월과 10월에는 지역대표 간담회,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도 각각 열었다.

그 결과, 어린이 독서체험관은 학생 중심에서 학생, 가족,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독서교육의 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인문 문화를 확산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게 됐다.

우수상은 체육예술건강과 박정남 팀장 외 1명의 '지자체와 7년 갈등 해결! 초등 급식비 분담 새 장을 열다'와 매곡고등학교 라영운 교사의 '시설개선과 교통신도를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가 각각 뽑혔다.



장려는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서혜경 기록연구사의 '100년간의 교육 기록물, 기억에서 기록으로'와 울산양정초등학교 엄진규 행정실장의 '쏟아지는 집중호우! 막아내는 공공협력! 안심하는 교육환경!'이 각각 뽑혔다.

가작은 울산교육연구원 김지은 주무관의 '울산교육청에서 카톡왔송'과 미래교육과 김정주 주무관 외 2명의 '울산교육 정보 한눈에 다 모아!'가 각각 뽑혔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포상금 70만원이 지급됐고, 교육감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상, 장려상, 가작 수상자에게는 각각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의 포

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는 전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14편이 제출됐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7편 중 최우수·우수사례는 이달 중 하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울산교육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염기성 부교육감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의 끊임없는 업무 연구와 개선으로 울산교육청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도 한층 더 높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경북교육청, 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조성 본격 시동

울릉 학생체육관, 울릉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실무협의체 회의

경북교육청은 27일 울릉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과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 울릉도서관, 울릉고등학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지역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체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울릉 학생체육관' (가칭)울릉다이어터 학교복합시설 사업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울릉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련됐다.

울릉 학생체육관 학교복합시설 사업

은 울릉지역 학생과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79억 원을 확보해 2024년부터 사전 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설계와 공사 과정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에는 대피시설과 주차장, 지상에는 평생 학습시설과 놀이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울릉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경북교육청에서 추

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울릉지역에 장기간 시행되는 대규모 시설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 학습권 피해와 지역주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울릉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평소 다양한 기반 시설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학교복합시설 조성이 지역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서로 상생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2023 희망 부산교육 정책 포럼' 개최

부산교육 발전 위해 교육공동체 머리 맞대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가 부산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운수)은 27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회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동체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희망 부

산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며, 그동안의 부산 교육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은 '부산 교육 대전환, 부산형 미래 교육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다. 1, 2부로 나눠 국내 석학 초청 강연, 토론행으로 운영한다.

1부 기초 강연은 박형주 아주대학교 석좌교수의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 주제 강연과 임천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2부 패널토론은 강기수 동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부산 교육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경자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 교육청의 핵심 정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다"며 "포럼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희망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지향점을 탐색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으로 견인하는 지역발전

2023 영양교육지도자 대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11월 21일 2023년 영양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가족 대토론회에 이어 11월27일에 영양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지도자 대토론회를 영양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지도자 대토론회에는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과장, 관내 초·중·고 교장이 참여했으며, 지난 21일 개최된 교육가족 대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토론회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영희 교육지원과장의 '경북미래교육지구 및 2024년 영양미래교육지구 학교 적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21일 개최된 교육가족 대토론회에서 나온 분야별 의



견들을 함께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지도자들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앞으로 대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영양군청과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2024년 교육계획수립에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양교육지원청 김영희 교육장은 "교육가족 대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관내 교육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2024년 해달미 영양교육에 반영하여 영양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로 인해 교육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번지 치유시설 '완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GRAND OPEN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대한민국의 **꿈**, 울진

2023

죽변항 수산물 축제

가자, 죽변! 먹자, 수산물!

2023. 12. 15(금) ~ 17(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일원

주최 |  울진군

주관 |  울진군 축 제 발전위원회

후원 |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울진죽변수협

 초대가수

